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김지혜
전화 033-660-4331 / 팩스 033-660-4344

보도자료

2020. 3. 17.(화)

제 목 마스크 판매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사기범 구속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금일(3. 17.)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에 한국전력공사를 사칭하여 공문을 보내 대표번호를 착신 전환하도록 한 후,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327,360,000원을 편취한 사기사건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사기범을 구속 기소하였음

①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피고인

- A○○(65세, 자영업자)

○ 죄명 및 공소사실 요지

-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. 2. 19.~20.경 마스크 제조 업체인 ‘ㄱㄴ○○○’에 한국전력공사를 사칭해 대표번호가 자신의 번호로 착신이 전환되도록 한 후,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‘KF94마스크’ 25만 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마스크 대금 327,360,000원을 송금하게 하고,
-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기

■ 착신 전환을 유도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

-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마스크 제조업체에 ‘전기 선로 공사로 인해 2-3일간 전화가 차단된다’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
-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에게 “*88을 누르고 070 000 △△△△* 을 순차로 입력하라, 그리고 착신전환을 받고 싶은 번호는 문자로 남기라”고 하며 착신전환을 하도록 유도
- ‘*88(전화번호)*’는 전화기의 일반적인 착신전환 방법으로 이때부터 마스크 제조업체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070 000 △△△△번으로 전화가 연결

※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은 문자로 전송한 휴대폰 번호로 착신전환된 것으로 오인

② 수사경과

- 2020. 2. 20. 강릉경찰서, 고소장 접수
- 2020. 2. 23. 피고인 구속
- 2020. 2. 28. 강릉경찰서, 당청에 구속 송치
- 2020. 3. 16. 구속 기소

③ 참고사항

- 피의자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, 송금액의 5%를 받기로 하고 거액의 피해금을 송금한 점을 고려하여 엄정 처리하였음 ☑